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의사에 관한 연구*

The Elderly Willingness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꺾 인 숙**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 Kwak, In-Suk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sidential spaces that the elderly wish to renovate and their willingness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as they grow old.

The analysis shows, first, the most inconvenient places as they grow old are the stairs, following by the toilet and the bath. Second, the place that the elderly most wish to renovate is the floor, upgrading floors with non-slippery materials. And they wish to remove the height differences on the floor to protect them from tripping over, upgrade the floor plan for their convenience and renovate the storage and working spaces at the kitchen and dining areas.

The more the government supports the costs of the residential renovation service, the more the elderly are willing to use the renovation service.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willingness to residential renovation are health, residential environment, experience to accidents and their allowances. The elderly who experienced accidents inside their residence are more willing to renovate their house.

Even though the elderly wish to renovate their houses, it's not carried out due to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lack of information. Thus, the government should share the useful information about residential renovation for the safety of the elderly and find a way to raise money to cover the costs of the renovation.

▲주요어(Key Words) : 주거공간(residential environment), 개조의사(willingness to improve), 개조희망(wish to renovate), 미끄럼방지(protect from tripping over)

I.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1960년대에 52.4세였으나 2006년 79.1세로 OECD국가의 평균수명인 78.9세를 넘어섰으며, 2008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었다(국가복지정보센터, 2008).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꺾인숙 (E-mail : kwak1526@yahoo.co.kr)

10.02).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며 특히 노인의 주거복지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과 같은 노인의 제반 문제 및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노인복지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에게 대한 부양을 사적 부양을 중시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정책하에서 노인의 주거문제는 노인 개인 또는 자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하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인의 경우 자가 비율은 높으나 주택의 건축경과년수가 오래 되었거나, 시설설비측면에서 낙후되어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노인들의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최근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거주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의 부양이나 보호가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노화에 따른 신체적, 감각적, 생리적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약화로 일상생활동작 능력의 저하됨으로써 노인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이 약화되어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다. 또한 혼자된 노인이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물리적인 결함에 의해 주택내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주거환경은 더 이상 안전한 주거공간의 역할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2007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가 의하면 노인들의 87.4%가 현재 집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에도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6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08). 따라서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으로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www.familycareamerica.com, 2007) 현실적으로 부모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이 자신이 익숙한 환경인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면서 생활이 가능해지므로 시설입소를 늦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사회부양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거공간에서 개조를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파악과 개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현재 진행중인 고령자주거지원법에 의거한 주거개조비용지원의 실효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 주거공간개조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노인이 자기가 살던 집에 계속 머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복지를 지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거주기반이 되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집수리 사업이나 사랑

의 집 고쳐주기 등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극소수의 노인가구만이 대상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법적인 기준도 미약한 실정이므로 주택개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조의 범위와 대상, 재정적 지원, 담당창구와 인력 등에 대한 유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의 최소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이나 대상범위 산정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주택개조가 비교적 활발한 일본의 경우 주택을 개조한 후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회수가 반으로 감소되었으며, 병원에서 퇴원후 자택에서도 재활치료의 효과가 유지되는 사례와 병의 악화가 멈추거나 건강이 회복된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清水冷一郎, 2002; 홍형욱, 2005에서 재인용).

고령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주거환경에서의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 만일 고령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통제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행동에 위축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고령자는 보행능력, 시각적 능력, 청각적 능력, 공간통합능력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므로, 주택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홍형욱, 2005; 박인숙, 2009).

주택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사고를 유발시킨 시설로는 바닥표면의 재질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우가 가장 많아 주거공간의 마감재료 선택시 사고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박인숙, 2009). 따라서 노인의 안전을 위해 욕실과 발코니의 경우 미끄럼 방지 타일과 같은 마감재료를 개조가 필요하다(한필원 등, 2008; 박인숙, 2009).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현관의 폭이 좁고, 가장 어두워서 공간사용에 큰 불편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시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기 때문에 현관 진입시 조도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한필원 등, 2008). 특히 노인은 시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각 실에 요구되는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내등의 경우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간접조명으로 전환하거나, 암순응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고 적응력이 저하되어 어두운 곳에서는 물체를 보기 어렵게 되므로(인테리어산업협회, 2001), 이런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실내조명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노인이 자신이 살던 주거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문턱이나 단차의 제거,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료의 설치, 노인의 시각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도 유지를 위한 조명시설, 좌식생활과 보행에 불편을 겪는 노인들을 고려한 주요 설비시설의 집중화, 안전 손잡이의 설치, 입식가구의 도입, 노인들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욕실과 화장실, 부엌공간 등에 레버식 수도꼭지의 설치 등 각 공간에 대한 개조를 통해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한 생활지원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하겠다.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으로의 개조는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보완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안전성과 독립성을 높여 주고, 사고발생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와 관련된 요인들

1) 성별

노인 안전사고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2003년에는 여성의 사고비율이 67.1%로 높았으며, 2004년에는 60.9%, 2005년에는 57.4%, 2007년에는 61.6%였으며, 전체 평균 남성의 사고비율이 38.9%, 여성의 사고비율이 61.1%로 여성의 사고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여성 노인의 사고가 남성노인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가정내 거의 모든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화장실이나 욕실의 경우 사용빈도가 높은 여성이 남성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소비자안전국, 2007). 사고 경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69.2%가 여성으로, 여성이 주거공간 내에서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곽인숙, 2009),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가정내 거의 모든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위험공간에 대한 개조의사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2) 연령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순발력이나 민첩성, 치밀성은 크게 떨어지며, 시지각기능도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특히 고령자의 수정체는 오랜 기간 동안의 자외선 노출로 인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투명에서 황색, 그 다음에는 갈색을 백내장이 진행되며 특히 높이 차이를 지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이인수, 2001). 따라서 연령의 증가로 인한 시지각능력의 퇴화로 인해 높이의 차이가 있는 계단이나 문턱, 바닥에서의 단차이에 의한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곽인숙, 2009).

노인의 경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퇴행성 질환을 겪게 되며, 기초적인 체력, 근력이나 악력의 저하가 오기 때문에 문이나 가구의 손잡이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건강한 일반 인과는 다른 디자인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주택의 형태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다. 따라서 주택내 사고발생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이 생활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른 주택내

사고경험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사고경험비율이 높았다(곽인숙, 2009). 이러한 경향은 홍형욱(2005), 박신영 등(2006)의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와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사고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주택의 형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주택의 건축년도와 거주지속년수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년도에 따른 주택내 사고 경험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가 사고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곽인숙, 2009).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2/3 이상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년수가 오래 경과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많은 노인들이 주택 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개조를 통해 노인의 주택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주거이동성이 낮으며(통계청, 2000), 특히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5년전과 거주지가 동일한 가구의 비율이 88.7%로 아주 낮은 주거이동을 보이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의 주거특성, 주거환경 특성, 주거개선 희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주택내의 사고

노인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나 신체적 퇴화를 운동기능이 둔화되면서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도 낙상 등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사고유형은 방문턱 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사고이며, 다음으로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등이다(홍형욱, 2005; 곽인숙, 2009). 또한 홍형욱(2005)은 주택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빈도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아 주택 내 안전사고는 부양자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개조의 대상가구를 노인단독가구는 물론이고 노인이 있는 가정으로 확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주택개조를 통한 물리적인 환경개선은 주택내 안전성 확보와 함께 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현재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공간내에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공간과 주거공간의 개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거공간개

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주거공간내에서 노인이 생활하는 시간은 증가하고, 불편하거나 위험한 환경이 되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할 때 노인의 주거공간내에서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주택내에서 개조가 필요한 공간은 어디인가?
- <연구문제 2> 노인의 주거공간개조의사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환경적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노인의 주거공간개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노인의 주거공간개조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 조사도구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은 55세 이상의 고령진입층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7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부실기재된 응답자를 제외한 671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주거공간의 개조의사에 관한 내용과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주거관련변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형태, 월평균 가계총소득 등을 포함하였으며, 주거공간적 특성으로는 거주지역, 주택형태, 주택소유, 주택의 건축년도, 주택내에서의 사고경험 유무, 주택개조 경험 유무, 거주지속년수를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읍면의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했다.

조사기간은 2007년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08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이 다수 포함되므로 조사원이 질문지에 의거하여 직접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구했으며,

노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개선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차분석과 logistic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39.0%였으며, 여성은 61.0%였다. 연령은 70~74세가 가장 많아 29.2%, 55~59세는 24.6%, 60~64세는 23.0%, 75~79세는 13.3%, 80세 이상은 10.0%였으며, 평균연령은 69.89세였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금 건강하지 못하지만 보조기구 사용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25.9%, 일상적 행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5.1%,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1.3%로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5.1%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4.9%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중 반정도(51.7%)는 농사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나 미화원과 같은 소득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46.2%로 절반정도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비교적 젊은 69.89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학교졸업이 18.0%, 고등학교졸업이 17.6%,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도 16.2%로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거주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노인 1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24.1%로 많았으며, 노인 1인가구가 21.8%, 노인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가 16.7%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노인끼리 생활하는 노인부부가구의 형태로 생활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자녀와 합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의 월평균가계소득은 159.17만원으로 도시근로자평균 소득인 376만원(2007년 통계청)에 비하면 평균소득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달 사용하는 용돈은 개인차가 커서 용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한달에 200만원까지 개인의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평균 한달에 22.74만원 정도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9.89세였다.

2.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37.0%, 서울 및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20.1%였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6.7%,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16.5%였다. 주택의 소유상태는 조사대상자나 배우자의 소유인 경우가 6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 소유가 19.4%였다. 전세는 8.2%, 무상임대가 3.1%, 사글세가 2.4%, 보증부 월세가 1.2%로 임차인 경우가 14.9%였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건축연도는 1990년대에 지어진 것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980년대에 지어진 것이 24.3%, 1980년대에 지어진 주택과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각각 18.8%로 주택경년이가 높아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개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43.5%가 사고를 경험했으며, 주택개조경험은 18.9%로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홍형욱(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짧은 경우 수개월에서부터 최장 80년까지였으며, 평균거주지속년수는 17.21년으로 도시의 평균거

주기간과 비교할 때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

3. 조사대상자의 주거공간 개조희망

1) 주거공간중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개조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

주거공간중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활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래에 개조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증가와 더불어 생활이 불편해질 공간으로는 계단이 9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장실이 47.8%, 욕실이 45.0%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한국소비자 보호원, 1998; 홍형욱, 2005, Kwak et al., 2008)에서 주택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볼 때 욕실, 계단실, 화장실 등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경험했던 곳으로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감각·생리적 기능의 변화로 과거에 안전하던 생활공간이 위험한 문제의 환경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노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의 조성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71)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성	262	39.0
	여 성	409	61.0
연 령	65세 미만	165	24.6
	65~69세	154	23.0
	70~74세	196	29.2
	75~79세	89	13.3
	80세 이상	67	10.0
건강상태	건강하며 독립적인 생활가능	454	67.7
	건강하지 않지만 독립생활가능	174	25.9
	일상적 행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	34	5.1
	거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활	9	1.3
직업유무	직업 없음	504	75.1
	직업 있음	167	24.9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310	50.4
	배우자 있음	361	49.6
교육수준	무 학	109	16.2
	초등학교졸	261	38.9
	중학교졸	121	18.0
	고등학교졸	118	17.6
	전문대 이상	62	9.2
거주형태	노인 1인 가구	146	21.8
	노인부부 가구	251	37.4
	노인부부+자녀 동거가구	112	16.7
	노인 1인+자녀 동거가구	162	24.1
		평 균	표준편차
월평균	총가계소득(만원)	159.17	157.17
월평균	용돈(만원)	22.74	22.30
평 균	연령(세)	69.89	6.76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적 특성

(N=671)

		빈 도	백분율
거주지역	읍면지역	248	37.0
	중소도시	288	42.9
	대도시	135	20.1
주택형태	단독주택	370	55.1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111	16.5
	아파트	179	26.7
	기 타	11	1.6
주택소유	본인/배우자 소유	441	65.7
	자녀 소유	130	19.4
	전 세	55	8.2
	보증부 월세	8	1.2
	사글세	16	2.4
	무상임대	21	3.1
주택의 건축년도	1980년 이전	126	18.8
	1980년대	163	24.3
	1990년대	256	38.1
	2000년 이후	126	18.8
주택내 사고경험	있 음	292	43.5
	없 음	379	56.5
주택개조 경험	있 음	127	18.9
	없 음	544	81.1
		평 균	표준편차
거주지속년수(년)		17.21	15.49

<표 3> 개조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

(N=671)

	빈 도	백분율
현 관	170	25.3
복 도	171	25.5
계 단	636	94.8
화장실	321	47.8
욕 실	302	45.0
침 실	32	4.8
부엌, 식당	185	27.6
거 실	19	2.8
베란다, 발코니	52	7.7

*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빈도가 일정치 않음

위해 시급히 개조가 필요한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거공간에 대한 개조희망 항목

주거공간에 대한 개조희망 항목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개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아 조사대상자의 62.9%가 개조를 희망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미란 등(2008)의 연구에서도 욕실 및 거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요소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61.5%,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평면을 부분적으로 개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55.6%, '부엌,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55.1%, '조명스위치의 위치변경,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를

희망하는 경우는 48.9%, '벽체에 안전손잡이 설치'는 4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거공간의 개조를 희망하는 것은 주택 내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미끄러움방지나 문턱과 단차를 제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개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개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28.8%였으며, 전액 무료라면 개조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 40.2%였다. 개조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면 개조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24.6%였으며, 개조비용을 전부 부담하더라도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개조인 경우 개조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표 4> 주거공간 개조희망 항목

(N=671)

	빈 도	백분율
평면을 부분적으로 개조	373	55.6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개조	422	62.9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	275	41.0
조명 스위치의 위치변경,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	328	48.9
부엌,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조	370	55.1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	413	61.5
주택개조 서비스		
개조를 원하지 않음	193	28.8
전액 무료라면 개조서비스 이용	270	40.2
비용을 보조해주면 이용	165	24.6
전액 유료라도 개조서비스 이용	43	6.4
	평 균	표준편차
주택수리시 정부에서 지원에 대한 요구	3.997	1.110

필요하며, 주거공간의 개조비용의 지원을 통한 사고예방은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주택수리시 정부에서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평균 3.99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요구수준을 나타냈다.

3) 평면의 부분적 개조 희망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개조 관련변인

‘평면을 부분적으로 개조’ 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 건강상태,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형태, 월평균 가계총소득, 거주지역, 주택형태, 주택소유, 주택의 건축년도, 주택내에서의 사고경험 유무, 주택개조 경험 유무, 거주지속년수 등의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은 노인의 직업유무와 주택의 건축년도였으며, 타 변인들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거공간에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개조’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사고경험, 개조경험유무, 거주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변인들은 유의적이지 않았다(<표 5> 참조).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평면개조를 더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건축년도는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평면개조를 더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 개조를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건축경년이 오래된 주택의 경우 평면이 현재의 생활과 잘 맞지 않아 평면개조를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역시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74.2%가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대부분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바닥에 의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주택내 사고경험 여부에 따라 개조희망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거공간 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7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개조경험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택을 개조한 경험이 있는 경우 77.2%가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의 주택개조 경험에 의해 개조가 생활에 안전함과 편리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미끄러지지 않은 주거공간에 기거할 가능성이 높고, 읍면동의 경우는 바닥의 미끄럼방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재 등(2008)의 연구에서도 노인주거 정책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계층화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4)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와 조명 스위치 개선 희망과 관련변인

주거공간에서 ‘벽체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41.0%로 절반이 조금 못되었으며, 손잡이 설치 희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 건강상태,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형태, 월평균 가계총소득, 거주지역, 주택형태, 주택소유, 주택의 건축년도, 주택내에서의 사고경험 유무, 주택개조 경험 유무, 거주지속년수 등의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 자녀와의 동거희망, 건강상태, 사고경험, 개조경험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의 ‘조명스위치를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

<표 5> 평면의 부분적 개조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개조 희망

(N=671)

		평면의 부분적 개조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직업유무	직업 없음	237(47.0)	267(53.0)	5.598**
	직업 있음	61(36.5)	106(63.5)	
건축년도	1980년 이전	43(34.1)	83(65.9)	8.175*
	1980년대	74(45.4)	89(54.6)	
	1990년대	116(45.3)	140(54.7)	
	2000년 이후	65(51.6)	61(48.4)	
전 체		298(44.4)	373(55.6)	671(100.0)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건강상태	비건강	56(25.8)	161(74.2)	17.555***
	건강함	193(42.5)	261(57.5)	
사고경험	경험 없음	188(49.6)	191(50.4)	58.266***
	경험 있음	61(20.9)	231(79.1)	
개조경험유무	개조경험 없음	220(40.4)	324(59.6)	13.676***
	개조경험 있음	29(22.8)	98(77.2)	
거주지	읍면지역	101(40.7)	147(59.3)	9.803**
	중소도시지역	88(30.6)	200(69.4)	
	대도시지역	60(44.4)	75(55.6)	
전 체		249(37.1)	422(62.9)	671(100.0)

*p<.05, **p<.01, ***p<.001

<표 6> 주거공간의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와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

(N=671)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자녀와 동거희망	자녀와 별거 희망	340(60.9)	218(39.1)	5.226**
	자녀와 동거 희망	56(49.6)	57(50.4)	
건강상태	비건강	95(43.8)	122(56.2)	30.788***
	건강함	301(66.3)	153(33.7)	
사고경험	경험 없음	257(67.8)	122(32.2)	27.844***
	경험 있음	139(47.6)	153(52.4)	
개조경험유무	개조경험 없음	337(61.9)	207(38.1)	10.217***
	개조경험 있음	59(46.5)	68(53.5)	
전 체		396(59.0)	275(41.0)	671(100.0)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건강상태	비건강	90(41.5)	127(58.5)	11.935***
	건강함	253(55.7)	201(44.3)	
개조경험유무	개조경험 없음	289(53.1)	255(46.9)	4.635*
	개조경험 있음	54(42.5)	73(57.5)	
전 체		343(51.1)	328(48.9)	671(100.0)

*p<.05, **p<.01, ***p<.001

하거나 위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건강상태와 개조경험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타 변인들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참조). 조사대상자가 미래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집단일수록 안전 손잡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기 때문에 현기증이나 몸의 중심을 지탱해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건강상태 역시 안전 손잡이 설치 희망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56.2%가 손잡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대부분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주택내 사고경험 여부에 따라 안전 손잡이 설치 희망에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거공간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52.4%, 사고경험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32.2%만이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주택내의 사고경험에 의해 손잡이 설치가 생활상 안전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과거에 주택을 개조해본 경험 여부에 따라 안전 손잡이 설치 희망에 차이를 보였는데 개조경험이 있는 경우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53.5%, 개조경험이 없는 노인은 38.1%만이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58.5%가 조명스위치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주택개조경험에 따라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에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택개조경험이 있는 경우 개선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부엌이나 식당의 수납공간을 설치하거나 작업대 개조 희망과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 관련변인

주거공간에서 '부엌이나 식당의 수납공간을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55.1%로 절반이 조금 넘었으며, 개조 희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 건강상태, 직업유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형태, 월평균 가계총소득, 거주지역, 주택형태, 주택소유, 주택의 건축년도, 주택내에서의 사고경험 유무, 주택개조 경험 유무, 거주지속년수 등의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거주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공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61.5%였으며, 개조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교육수준, 거주지, 사고경험, 용돈 등이었으며 타 변인들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7> 참조).

조사대상자중 여성의 경우 62.8%가 부엌이나 식당의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노인의 경우 부엌이나 식당공간의 개선에 대해 관심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거주지에 따라서도 부엌이나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개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신영 등(2006)의 연구에서도 주택개조 의사가 도시고령자보다 농촌고령자가 더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

<표 7> 부엌·식당의 개선이나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 제거 개선 희망

(N=671)

		부엌·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선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성 별	남 성	149(56.9)	113(43.1)	25.072***
	여 성	152(37.2)	257(62.8)	
거주지	읍면지역	101(40.7)	147(59.3)	6.415**
	중소도시지역	127(44.1)	161(55.9)	
	대도시지역	73(54.1)	62(45.9)	
전 체		301(44.9)	370(55.1)	343(100.0)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제거 개선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건축년도	1980년 이전	37(29.4)	89(70.6)	15.626***
	1980년대	82(50.3)	81(49.7)	
	1990년대	89(34.8)	167(65.2)	
	2000년 이후	50(39.7)	76(60.3)	
용 돈	10만원 미만	58(34.1)	112(65.9)	8.244*
	10~20만원 미만	61(39.4)	94(60.6)	
	20~30만원 미만	45(32.1)	95(67.9)	
	30만원 이상	94(45.6)	112(54.4)	
사고경험	경험 없음	179(47.2)	200(52.8)	28.366***
	경험 있음	79(27.1)	213(72.9)	
전 체		258(38.5)	413(61.5)	671(100.0)

*p<.05, **p<.01, ***p<.001

상자 주택의 건축년도에 따라 문턱이나 단차 제거를 위한 개조 희망에 차이를 보여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도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를 희망하는 비율이 60.3%나 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신규주택 공급시 문턱이나 단차를 최소화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용돈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한달 용돈이 20-30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 개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주택내 사고경험 여부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거공간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인숙(2009)의 연구에서 주택내 사고발생이 계단이 25.0%, 바닥단차에 의한 것이 13.7%, 문턱이 12.9%였던 것을 감안할 때 주택내 사고를 경험한 거주자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공간 개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조희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환경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Logistic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노인의 평면 개조희망에 대한 모형은 Wald 통계량 8.102(p<.01), 자유도 16, χ^2 통계량 43.174(p<.001), 미끄럼방지

를 위한 개조희망에 대한 모형은 Wald 통계량 36.891(p<.001), 자유도 16, χ^2 통계량 85.157(p<.001), 벽체에 안전손잡이 설치 희망에 대한 모형은 Wald 통계량 24.310(p<.001), 자유도 16, χ^2 통계량 66.993(p<.001)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Logistic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노인의 주택 평면 개조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직업, 생활만족도, 생활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년도, 거주지속년수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 .907배, 거주지속기간이 길수록 .987배,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922배 개조희망이 낮았으며, 노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업이 없는 노인보다 1.509배, 주택의 건축경년이 오래 되었을수록 .973배 더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주택의 개조경험, 주택내 사고경험, 거주지속

년수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생활이 만족할수록 .911배, 거주지속기간이 길수록 .982배 개조희망이 낮았으며, 노인이 주택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3.324배, 주택을 개조한 경험이 있는 경우 2.324배 더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에 안전손잡이 설치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사고의 경험, 주택의 개조경험, 거주지속년수, 주택의 건축년도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608배, 거주지속기간이 길수록 .981배, 건축년도가 오래되었을수록 .984배 개조희망이 낮았으며, 주택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1.972배, 주택의 개조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노인보다 1.792배 더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에 대한 모형은 Wald 통계량

<표 8>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희망에 대한 logistic 분석-1

	평면개조희망			미끄럼방지 개조희망			벽체에 안전손잡이 설치		
	P.E.	S.E.	Exp(B)	P.E.	S.E.	Exp(B)	P.E.	S.E.	Exp(B)
거주지	.256	.200	1.292	-.055	.213	.946	.093	.205	1.098
성 별	.154	.186	1.167	.210	.198	1.234	.250	.194	1.284
연 령	-.030*	.014	.907	.006	.015	1.006	-.004	.014	.996
직업유무	.411*	.212	1.509	.217	.223	1.243	.130	.216	1.139
배우자유무	-.108	.206	.897	.197	.219	.369	.226	.212	.286
자녀동거여부	.275	.210	1.317	.198	.220	1.219	.025	.216	1.025
건강상태	.117	.142	1.124	-.284	.158	.753	-.497***	.147	.608
월평균 가계소득	.000	.001	1.000	.000	.001	1.000	.000	.001	1.000
용 돈	.004	.004	1.004	.002	.004	1.002	-.007	.004	.993
생활만족도	-.082*	.035	.922	-.093**	.037	.911	-.050	.036	.951
사고의 경험	.338	.175	1.402	1.201***	.191	3.324	.679***	.177	1.972
주택의 개조경험	.008	.213	1.008	.843***	.247	2.324	.583**	.215	1.792
거주지속년수	-.015*	.008	.987	-.018**	.007	.982	-.020**	.008	.981
주택형태(아파트)	.102	.196	1.108	.045	.212	1.046	.047	.203	1.048
주택의 건축년도	-.027***	.008	.973	-.003	.007	.997	-.016*	.007	.984
상 수	55.629***		16.211	6.827		14.552	34.935		14.878
Log Likelihood		856.696***			784.865***			816.248***	

*p<.05, **p<.01, ***p<.001

<표 9>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희망에 대한 logistic 분석-2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			부엌·식당의 수납공간, 작업대 개선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제거 개선		
	P.E.	S.E.	Exp(B)	P.E.	S.E.	Exp(B)	P.E.	S.E.	Exp(B)
거주지	.025	.195	1.025	.264	.200	1.303	.053	.207	1.055
성 별	.218	.183	1.243	.847***	.187	2.333	.265	.192	1.303
연 령	-.019	.014	.982	-.033*	.014	.967	-.022	.014	.978
직업유무	-.113	.204	.893	.106	.210	1.112	.243	.217	1.275
배우자유무	.013	.200	.949	.459	.208	.028	.028	.213	.895
자녀동거여부	.213	.204	1.238	-.224	.209	.799	.240	.216	1.271
건강상태	-.368**	.141	.692	-.133	.141	.876	-.394**	.155	.674
월평균 가계소득	.000	.001	1.000	.001	.001	1.001	.000	.001	1.000
용 돈	.000	.004	1.000	.000	.004	1.000	-.004	.004	.996
생활만족도	-.012	.034	.988	-.050	.035	.951	-.020	.036	.981
사고의 경험	-.046	.170	.955	-.126	.175	.882	.748***	.182	2.113
주택의 개조경험	.397*	.213	1.4808	.075	.217	1.078	.643**	.232	1.902
거주지속년수	-.015*	.008	.987	.006	.007	1.006	-.014*	.007	.986
주택형태(아파트)	.102	.209	1.108	-.069	.198	.933	.038	.205	1.039
주택의 건축년도	.008	.007	1.008	-.013	.008	.987	-.016*	.008	.984
상 수	-12.325	13.855	30.329*	15.481	35.632*	15.474			
Log Likelihood		885.776***		849.457***		816.367***			

*p<.05, **p<.01, ***p<.001

<표 10> 주거공간 개조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거주지	-.006	-.003
성 별	-.006	-.004
연 령	-.018***	-.140
직업유무	-.024	-.012
배우자유무	.059	.033
자녀동거여부	-.062	-.034
건강상태	-.087	-.063
월평균 가계소득	.001*	.113
용 돈	.000	-.023
생활만족도	.016	.051
사고의 경험	.367***	.204
주택의 개조경험	.388***	.172
거주지속년수	.005	.079
주택형태(아파트)	.198**	.111
주택의 건축년도	.003	.057
상 수	-3.580	
R ² (adj. R ²)	.130(.108)	
F값	5.940***	

*p<.05, **p<.01, ***p<.001

25.072(p<.001), 자유도 16, χ^2 통계량 39.916(p<.001), 부엌이나 식당의 개조희망에 대한 모형은 Wald 통계량 7.242(p<.01), 자유도 16, χ^2 통계량 51.283(p<.001),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의 제거 희망에 대한 모형은 Wald 통계량 31.563(p<.001), 자유도 16, χ^2 통계량 59.289(p<.001)로 나타나 본 연구의 Logistic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노인의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택의 개조경험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692배 개조희망이 낮았으며, 노인이 주택의 개조를 경험한 경우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1.488배 더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이나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의 개조 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967배 개조희망이 낮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이 2.333배 더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 제거를 위한 개조 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사고의 경험, 주택의 개조경험, 거주지속년수, 주택의 건축년도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674배, 거주지속기간이 길수록 .986배, 건축년도가 오래되었을수록 .984배 개조 희망이 낮았으며, 노인이 주택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2.113배, 주택의 개조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노인보다 1.902배 더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5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개조적극성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까지로 평균은 4.008점이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내 사고의 경험($\beta = .204$)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개조경험유무($\beta = .172$), 연령($\beta = -.140$), 월평균 가계소득($\beta = .113$), 주택형태($\beta = .11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0.8%였다. 즉 주택내에서 사고를 경험했을수록 주거공간 개조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으며, 과거에 주택개조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의 소득이 많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주거공간 개조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여러 위험요소와 불편함을 가지게 되어 주거공간의 개조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다. 주거공간을 노인의 약화된 신체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개조하게 되면 노인에게 주택내 사고발생이 적어지고 안전성이 증가하게 되어 안심하고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의 시설입소를 늦추어주고 가능한한 익숙한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지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부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들이 희망하는 개조공간과 개조의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주거공간중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활하기에 불편해진 공간으로는 계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장실, 욕실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볼 때 욕실, 계단실, 화장실 등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주거공간에 대한 개조희망 항목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개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평면을 부분적으로 개조', '부엌,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조'의 순서로 희망하고 있다. 주택개조 서비스 이용은 전액 무료라면 개조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개조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면 개조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였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개조인 경우 개조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고예방은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의 주택 평면 개조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직업, 생활만족도, 생활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년도, 거주지속년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미끄러움방지를 위한 개조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주택의 개조경험, 주택내 사고경험, 거주지속년수 등이 영향을 미쳤고, 벽체에 안전손잡이 설치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사고의 경험, 주택의 개조경험, 거주지속년수, 주택의 건축년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에는 건강상태, 주택의 개조경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부엌·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의 개조 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 제거를 위한 개조 희망에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사고의 경험, 주택의 개조경험, 거주지속년수, 주택의 건축년도 등이 영향을 미쳐, 노인이 주택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이거나 주택의 개조경험이 있는 경우 더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택내 사고의 경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개조경험유무,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주택형태의 순으로 영향을 미쳐, 주택내에서 사고를 경험하거나 과거에 주택개조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의 소득이 많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주거공간 개조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노인들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주택의 개조를 희망하지만 경제적인 제약이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부에서는 기존 노인주택의 개조시 우선적으로 계단, 화장실, 욕실 등 노인의 안전을 위한 개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개조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인의 주거환경이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각각의 요구수준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지원보다는 지역에 따른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단독주택에 기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조방법과 개조지원비용, 개조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의 개조의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취급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측면에서의 주거공간 개조의사와 응급시스템 등 첨단 시설에 대한 설치의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개조의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2005).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 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 곽인숙(2009). 노인의 주택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55-66.
- 국토연구원(2008).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김미란·이경훈(2008). 노인을 배려한 공동주택 설계 시 중요요소 도출에 대한 의식조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9), 27-35.
- 박신영·최은희·지은영(2006).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주거욕구 분석, **Huri Focus**, 14호, 1-25. 주택도시연구원.
- 이성재·채준섭·유응교(2008). 전북 고령 진입층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1), 65-72.
- 인테리어산업협회(2001). **고령자를 위한 조명과 색채**, 도서출판 국제, 2001.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 한필원·손명기·김홍용·박진옥·이주옥(2008). **리모델링**, 53-66.
- 홍형욱(2005).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22.
- Kwak, Insuk & Jaesoon Cho(2008). Domestic Accidents of Older People in Korea, **ENHR**.
- www. e-welfare.go.kr(2008). 국가복지정보센터.
- www. familycareamerica.com(2007).

접수 일 : 2009년 09월 15일

심사 일 : 2009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01일